

“연합함으로 칭찬받는 목사회 되길”

제 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5일(주일) 오후 4시에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취임사를 전한 정중운 목사(남가주 목사회 회장)는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년에는 목사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목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간 기쁘지 않다. 목회자들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복지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 이민 목회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세미나를 단계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목사회 사무실도 개설할 것이다. 또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해 각계 각층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남가주교협과 상호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네트워크 상설화로 유익한 정보제공은 물론 목회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임인사를 전한 이은영 목사(46대 회장)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한 해 올 수 있었다. 내년 한 해도 목회자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목사회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주목사회 4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재권 장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동성애, 마약에 물들고 영적으로 쇠퇴되어가는 현 세대에 주의 종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회 직

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협약한 세대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년 한 해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취임식은 사회 백지영 목사(수석부회장), 기도 류당열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 성경봉독 강종민 목사(부회장), 설교 박현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 헌금기도 이우형 목사(부회장), 이임인사, 취임인사, 목사회 기 이양식, 기념패 전달, 축사 박호우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김사무엘 목사(증경회장),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회장단 및 임원 소개, 이사회 소개, 광고 김관진 목사(총무), 축도 이태환 목사(원로목사회 수석부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위협받는 결혼... 동성결혼 이어 일부다처제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수가 늘어나면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다처제’를 용인하는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클락 워드스 판사는 지난 13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배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지만 이것이 주법 및 연방법에 어긋나 같음을 겪자 현재는 이를 금지한 상태다. 그러나 몰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급진적 분파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워드스 판사는 판결을 통해 “주 법률에서 중혼에 대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 일부다처제에 대한 제재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적 결혼은 한 명과 해야 하지만 성관계를 맺는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사생활이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몰몬교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AUBC) 신자로 아내 4명과 자녀 17명을 둔 코디 브라운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서 비롯됐다. 브라운은 중혼과 일부다처제 관련 주법을 어긴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던 중 네바다 주로 이주한 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한 명의 아내와만 법적으로 결혼했으며, 나머지 세 명의 아내와의 관계는 ‘영적인 결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이에 워드스 판사는 혼외관계에서의 성행위를 중혼과는 차별화한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주’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이번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은 (그들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적 사생활인가에 있으며, 원고측 주장과 같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주법은 사적인 성행위를 결혼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운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다처제 가족을 용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우리 가족의 방식이고 우리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며, “우리가 다른 가족들의 사적이고 종교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우리의 선택을 다양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 아름다운 나라의 일부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지난 1879년 연방대법원이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 사건에서 주 정부에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은 최초의 판례로 향후 미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인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목사는 “결혼이란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평생 서로를 향한 헌신과 이에 대한 자녀의 필요와는 동떨어져 감정적이고 성적인 것으로만 치부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며, “일부다처제가 이사회에서 금지된 이유는 그것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해악을 입히기 때문이다. 결혼의 정의는 너무나 방만해졌고 머지않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손헌정 기자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는 15일 성탄축하연합찬양예배를 드리며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밸리교협 성탄절 장학금 전달

2013년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서중운 목사)가 15일(주일) 오후 5시에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에서 지역교회 연합으로 “성탄절축하연합찬양예배”를 드리고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 김영일 목사(밸리중앙장로교회), 기도 샘 리(밸리연합감리교회), 이정현 목사(밸리서울교회), 특송 김주연 집사(밸리연합감리교회), 설교 이준우 목사(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 헌금기도 나형길 목사(그리움교회), 헌금특송 밸리지역

목회자부부 순으로 진행됐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준우 목사는 “성탄의 의미는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사건”이라며 “인간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삶의 중심이 있다면 하

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24명의 학생이 각 1000불씩 장학금을 받았으며, 지난 1년간 밸리교협을 위해 수고한 이준우 목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성탄축하 찬양제는 류재덕 목사의 환영인사로 진행된 가운데, 밸리드림색소폰팀, 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 찬양대, 에버그린교회 찬양대, 웨스트힐장로교회 유스밴드, 은혜와평강교회 찬양대,

밸리연합감리교회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가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올해 밸리교협 서기로 섬긴 콕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 금액 규모와 학생 수가 딱 들어맞았다. 참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 교협 회원 교회들과 지역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토마스 맹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hmi 기독교의료상호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PIEDMONT UNIVERSITY
피드몬트 대학교 보육대학
제 3기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자격증 취득반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 보육대학에서 제3기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자격증 취득 학생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입학하여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 교육현장에서 아름답게 사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학 기간 :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24일(금)
 수업 시작 : 2014년 2월 3일(월)
 수업 문의 : 보육 대학 학장 1-714-356-2990 (직통)
 특혜 사항 : 목회자, 목회자사모, 선교사, 특별사역자에게는 특혜있음

총 장 : Dr. William Stinde Ph.D.
 학 장 : Dr. Joyce Kim, DCE.

Piedmont University
 10900 S. Vermont Ave. LA, CA 90044
 본교사무실 1-323-777-5269 , 보육대학 1-714-356-2990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6회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6회 정기연주회 성대히 개최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이상기 목사)이 15일(주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이란 주제로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와 축복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기연주회에는 지휘에 전종재 교수, 반주에 헬렌 박씨가 참여했다. 이날 재정 10만불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 뽑힌 10명의 학생들이 찬양단

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특별출연으로 헤세드남성중창단(세리토스장로교회)과 살롬권사찬양대(나성열린교회)가 연주회에 참여해 은혜를 더했다. 연주회에 참여한 찬양단들은 13곡의 합창을 선사하며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대한신학교가 15일 풍성한교회에서 종강예배, 수료식, 송년회를 했다.

미주대한신학교 종강예배 및 수료식

미주대한신학교(총장 강부웅 목사)가 종강예배를 드리고 3명의 학위수여자를 배출했다. 15일 오후 5시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학교 교목실장인 박병구 목사의 사회, 사이버대학장인 권오달 총장, 강부웅 목사의 말씀으로 종강예배를 드렸다. 강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신다"며 "복음은 불변하나 전달방법은 시대를 따라 사이버를 통해서도 많은 사명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

재단이사장인 류당열 박사가 격려사를 전한 후, 피터 최 목사와 김숙영 장류영 목사의 축가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어 남가주노회 부노회장인 김영배 목사의 사회로 송년의 밤이 진행됐다. 한편, 미주대한신학교는 본국 교단 총회에서 인준 후, 1995년 3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하고, 연방정부에 학교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입학 문의: 213-500-9625(학교) 박창민 기자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계속되는 온정의 손길

쌀 포함해 입금액 3만335불, 작성액 3만6350불 등 총 6만6685불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월 오전에 옐리시카운티 지역에서 첫 성금전달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따

뜻한 손길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남가주 교회들에 후원을 요청했다. 12일까지 입금액 3만335불, 작성액 3만6350불 등 총계 6만 6685불로 나타났으며, 현물로 쌀 48포가 전달됐다. 이번 쌀 나눔은 오는 21일(토)과

2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부가 진행된다. 1차 배부(21일)는 LA총영사관, 갈보리믿음교회, 은혜한인교회, 주안예교회, LA종교평화협의회 원불교 LA교당에서 있으며, 2차 배부(28일)는 LA한인회, 나성동산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풍성한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주안예교회, 충현선교회, 드림교회, 유나온성결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아름다운교회, 나침반교회, 은혜한인교회 등에서 진행된다. 이 운동은 LA총영사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공동주최한다. >성금 보낼 곳 :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Pay to: CKCSC-사랑의 쌀) >문의 : (323) 735-30008 토마스 맹 기자

엘에이 동부교협 신임회장에 전병주 목사



엘에이 동부교회협의회 총회가 16일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렸다.

엘에이 동부지역 교회연합체인 엘에이 동부교회협의회가 16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다. 이날 모임의 1부 예배는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의 기도,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2013년도 회계보고와 함께 2014년도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 이인규 기자

회장에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총무에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서기에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전병주 신임회장은 "동부지역 교회의 연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부교협은 매년 연합 찬양제,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광복절 연합기도회, 성탄연합성가제로 동부지역 교회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Advertisement for VISIONDRIVE HD BLACK BOX. Features include: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Contact: Joseph Park, 213.235.7836, 310.902.3944.

Advertisement for Hyundai. Text: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Contact: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Large advertisement for the 5th 2013 Love Rice Sharing Movement. Title: 제 5 차 2013 사랑의 쌀 나눔 운동. Subtitle: 사랑의 쌀을 배부합니다 2013년 12월 21일(토), 28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Content: 남가주 지역에서 사랑의 쌀을 나누기 원하는 한인 공휴단체와 한인교회와 한인 사회봉사기관과 타민족 선교회 등의 단체와 생활보호 대상자와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과 저소득층 등 개인들을 대상으로 쌀 10,000포를 다음의 장소에서 배부합니다. 배부장소: 1차 배부(단체): 2013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오후 1시-3시. 2차 배부(개인): 2013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공동주최: LA총영사관(신연성 총영사), 옐리시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한국일보(전성환 사장), 중앙일보(고계홍 사장),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종윤 목사), 미주(LA)성서화운동본부(상임회장 한기형 목사).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총괄 상임 회장 한기형 목사, 공동대회장 박효우 목사, 민경엽 목사, 신연성 총영사. 문의 (후원 및 배부): 남가주교협 총무: 홍성관 목사 (310)691-4426,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 (714)699-0210.

'소망 우물' 하나면 매일 27명에게 새로운 삶

조이플중창단, 아프리카 위한 찬양과 나눔의 밤

"성탄절을 기해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우물파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차드에서 소망우물 마련을 위해 "찬양과 나눔의 밤"이 오는 20일(금) 오후 7시에 필그림교회(김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성탄절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조이플선교남성중창단(단장 김영남 장로, 지휘 서문욱, 반주 이효경) 주최, 오렌지남성성가단(단장 이종문 장로, 지휘 서문욱, 반주 안정희)·C.M.C(California Master Chorale 지휘 김원재, 반주 신유희)·필그림교회 성가대(지휘 서문욱, 반주 이지수) 협연, 라디오코리아 협찬으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200호 공사를 앞두고 있는 소망소사이터티에 전액 전달돼 2개의 우물파기 공사에 쓰여진다. 우물을 한 개 파는데 600불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20일 오후 6시부터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밤에서는 90

여분 동안 찬양의 시간과 선교를 후원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라디오코리아에서는 이 행사를 녹음해 오는 24일과 25일에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이틀간 AM 1540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조이플선교남성중창단 증경 단장이자 현 오렌지남성성가단 단장이자 이종문 장로는 "얼마전 단원들이 아프리카의 어느 소년이 물이 없어서 소변을 받아먹는 장면을 보게 된 후,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에서 소망우물 마련을 위한 나눔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의사가 말하기를 소변을 먹으면 48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우리가 가진 찬양의 은사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 우물을 하나 파면 하루에 27명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한달이면 810명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생명인 차드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우물을 파주고 싶다"고 밝혔다.



오렌지남성성가단 단장 이종문 장로.

이번에 참여하는 서문욱 지휘자는 한국의 선명회합창단 1회 지휘자 출신으로, 남가주장로성가단에서 8년간 지휘를 이끌었다. 현재 필그림교회 음악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필그림교회 주소: 234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문의: (714) 520-0034

토마스 맵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후원의 밤'. 약 1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하였다.

미주성결대학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로"

미주성결대학교가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다. 15일 열린 후원의 밤에서 류종길 총장은 "ABHE 정회원 취득, ATS 준회원 취득, 간호대학과 법예과 개설 등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기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되어 차분하게 내실을 다져오던 미주성결대는 2011년 제3대 총장에 류종길 박사가 취임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2012년 2월에 ABHE 준회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6월에는 1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교사도 구입했다. 2013년 1월 신학 학사, 간호학 준학사, 목회학·상담학·선교학 석사과정 등이 주정부 교육국(BPPE)의 허가를 받았다. 6월에는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SEVIS가 발행 가능해 됐다. 내적으로도 이 학교는 류총장 취임시부터 기도회원 10만명, 후원이사 200명, 세계적 교수 및 학생 1천명 모집을 위해 기도해 왔다.

재정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다소 과격적인 장학 조건을 내걸고 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의 경우, 토플 점수, 성경 시험 점수, 담임목회자 추천서 등 조건만 된다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수장학생, 최우수장학생, 우수장학생을 뽑는다. 이들에게는 3년 간의 학비와 생활보조비, 영어사역 인턴십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훌륭한 인재라면 반드시 붙잡겠다는 의지가 엿

보인다.

이날 후원의 밤에는 약 100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사장 조종근 목사,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박광원 장로, 총무이사 이경원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해외선교위원장 유동선 목사,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송중복 목사,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멕시코 선교사 황예행 박사, 명예총장 이정근 목사, 시애틀성결교회 강준식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비전 나눔의 시간에서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총장과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의 대사회활동 디렉터인 영 김 씨 등이 축사를 맡았다.

한편, 후원의 밤에 이어서는 엘리자베스 크라우스 박사와 제이비 크라우스 주니어 박사 부부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엘리자베스 크라우스 박사는 1959년 OMS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에즈베리대학교와 예일대 간호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 복음화와 의료 선교에 힘썼다. 그의 남편인 제이비 크라우스 주니어 박사는 에즈베리대학교 에즈베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OMS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그는 세계구호선교회 부총재, 토털임팩트에반젤리즘의 대표, 서울신대 이사, OMS 한국총재, OMS 국제총재를 역임한 바 있다.

문의: (323) 643-0301, www.aeu.us 김준형 기자

클래어몬트신학교

한국어 D.Min. 설명회

클래어몬트신학교에서 한국어 목회학박사 과정에 대한 설명회가 12월 4일 열렸다. 클래어몬트의 목회학박사 과정은 목회 현장에 대한 통합적 분석에 기초해 사회와 개인의 갈등과 치유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 과정은 북미신학교협의회(ATC,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의 인가뿐 아니라 신학교 가운데 드물게 서부지역대학협회(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가까지 받은 것이 특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회학박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최근의 변화가 공시됐다. 기존의 32학점에서 28학점으로 이수 학점이 줄었으며 이수 기간도 과거 5학기에서 3학기로 줄었고 수업료도 학점당 715달러에서 600달러로 줄었다.

클래어몬트신학교는 서부 지역의 신학교 가운데는 120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연합감리교회의 13개 산하 신학교 중 서부 유일의 신학교이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 목회학박사 과정 역시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은 물론 장로교 등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 입학 희망자의 경우, 2014년 2월 1일까지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이효주 목사 (973) 713-3009 koreandmin@cst.edu 김준형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새로운 회장단 선출

김병용 신임회장 "지역교회 연합해 선한 일 도모"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총회를 열고 2014년 지역 교회 발전을 위한 연합 사업을 계획했다.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새로운 회장단 선출과 함께 2014년 사우스베이 지역교회 연합사업을 도모한다.

지난 15일 오후 5시에 성서장로교회(김병용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총무에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사교회)가 각각 뽑혔다.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구 목사는 북1장 26-38절을 본문으로 "성탄절에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마리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녀인 그가 임신을 하게된 일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인 반면, 사람이 볼 때는 치욕스럽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인 너무나 큰 시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구 목사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 은혜를 완성하는 것은 마리아가 임태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며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된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사우스베이 지역 목회를 감당하자"고 말씀을 마쳤다.

이러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병용 목사가 회장에, 김현수 목사가 총무에 선출됐다.

신임회장 김병용 목사는 "사우스베이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부 순서에서 사우스베이 목회자들은 웃놀이를 친목을 다졌다.

이인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안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Los Angeles, Lajolla, Fairfax, Wilshire, Skokie

“구원과 이단이라 하면서,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 선포”

김세운 박사, ‘칭의와 성화’ 세미나서 한국교회 현실 질타



김세운 박사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서울영동교회(담임 정현구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 박사는 이날 ‘칭의와 성화’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참석한 3백여명의 목회자들에게 강연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했던 종교개혁 기념강연 내용을 기초로 올해 8월 <칭의와 성화(두란노)>를 펴낸 바 있다.

보수·개혁교회, 성경 비평 막아 천박한 해석 초래

예정론·성도의 견인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안심’

김세운 박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도덕적 타락과 신학적 부패’라고 요약하면서, △사제주의, 공로(상급)신학, 스콜라 신학방법 등 중세 가톨릭주의로의 회귀 △부본적이고 왜곡된 복음 등의 원인을 열거했다. 김 박사는 “한국 보수교회, 개혁교회는 불쌍한 성도들이 이단의 밥이 되도록 하는 ‘포판’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성경에 대해 비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비평을 막아버려 성경은 중세처럼 ‘닫힌 책’이 됐고, 기존 교리들이나 문자적·율법적 방식에만 해석하게 되고, 읽기 좋아하는 구절들만 읽는 천박한 현상을 초래했다.

그는 “보수 교회에서 어디까지나 교리에 맞춰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복음에 힘이 없어졌다”며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 버리고, 구원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스콜라 신학 방법론과 교조주의에 의해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사람들이 아무리 쿠틀을 해 본들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껏 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 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특히 김세운 박사는 ‘칭의의 복음’에 대한 왜곡에 주목하면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 본회퍼가 말했듯 싸구려(값싼)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보수 교회에서는 의로운 삶을 막고,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이 공공연히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선포되고 있다”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든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윤리란 몇 가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끝난다”고 밝혔다. 교회에서는 주일성수·헌금·전도 세 가지만 하면 되고, 술·담배·제사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김 박사는 “술과 담배는 음식을 가리는 문제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별파’들이 바리새인·서기관들과 가장 논쟁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짚 무시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경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과 이웃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론에 대해 법정적 의미만 강조하고 관계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적 의미가 중요하지만, 의(義)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한다는 뜻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는 신실한 관계이고, 원

만한 관계는 바로 ‘살림’이 되며, 죄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불의(不義)”라고 설명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차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행위구원을 배격하기 위해 의인이 되었다는 말 대신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는 말만 강조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또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가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칭의는 지레 받았다는 선취(先取)이지, 완성이 아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선취한 의인됨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칭의론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로마서만 봐도 3-4장에서 칭의를 설명한 후 5장에서 ‘이 관계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도 설명했다.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일방적이고 사변적 이해로 양양된 잘못된 안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 교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을 말하려면 예정론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면서도 “칭의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심’이라는 데서 보듯 결국 미래적인 것으로, 성경은 구원으로부터 탈락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분명히 경고하고(고전 10:12, 롬11:17-24, 히6:1-10)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성화를 새로운 단계로 보아 버리는 우를 범했다”며 “구원의 서정 구도 안에서 성화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칭의란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권 전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와 의의 열매 맺는 삶 살아야

이후 김세운 박사는 ‘칭의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회심 때 우리는 그리스도 대속 제사의 덕(은혜)을 믿음으로 입어, 우리 죄에 대한 사면(acquittal)의 인이라 칭함받는다(declared righteous)는 것이다(은혜로만·믿음으로만). ‘의인이라 칭함받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는 뜻이므로,

칭의란 ‘주권의 전이’, 즉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대신 왕권을 대행하는 나라(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이진됨을 의미한다(롬1:3-4, 고전15:23-28, 골1:13-14). 그러므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또 세례 때 얻는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얻을 칭의의 선취에 불과하므로(롬8:31-39), 현재 회복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있음,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의 ‘칭의의 복음’에 대한 강해를 12-15장에서 ‘의로운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이 두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다. 이러한 삶은 ‘의의 열매(빌 1:11)’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된 자됨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는 곧 ‘성령의 열매(갈 5:22-23)’이다.

그리고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과거·현재·미래)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믿음의 시작점(세례) 때 다 이뤄지고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성화’는 칭의를 따르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또 하나의 ‘그림언어’로, 칭의와 병행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김 박사는 “성화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으로서 세상의 오염을 계속 피하고 거룩하게 사는 현재성을 띠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칭의론을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윤리적 요구와 분리시키는 구원파적 왜곡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칭의와 성화>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바울의 구원론을 ‘칭의-성화-영화’의 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전통 신학적 ‘구원의 서정’에서의 ‘성화’는 칭의의 현재 단계에 대해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것. 그에 따르면 칭의 다음이 성화가 아니라, 둘은 같은 실재를 말하는 다른 그림언어들(metaphors)이다.

칭의가 죄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구원을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법정적 누앙이라면, 성화는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오염으로 보고 구원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는 제의적(cultic) 누앙이다. 한 마디로 ‘성화’는 칭의의 구조 속 현재적 삶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동의어적 어휘이다. 이렇게 보면, ‘성화’는 확정된 구원 이후 하늘나라 상급의 구도가 아니라, ‘칭의된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라고 더 노력하게 만든다.

김세운 박사는 “은혜로만·믿음으로만’의 구원과 윤리적 요구의 통합이라는 논지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칭의(장로교)와 성화(감리회·성결교) 중 어떤 면을 강조하는 전통에 속하든 우리 모두 칭의론은 결국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순종(롬 1:5, 16:26)’을 골자로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이로써 의로운 삶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그릇된 칭의론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칭의론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세운 박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의해 즉 하나님 은혜로만 이뤄지고 진행되는 우리의 칭의·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칭의(구원)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가야 한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여, 즉 우리의 실존에서 그의 하나님·이웃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키므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신입·편입·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 고김치선박사께서 설립하여 수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Education Code 94874(e)(1))로 Th.B., Th.M., M.Div., D.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 기간 :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취득하면 전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학비 : 본 대신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안수 : 본 대신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음

▣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

남·여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써 학력제한 없음	목회학석사 M. Div.	96학점	B.A., M.A. 학위 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써 학력제한 없음	목회학박사 D. 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사 Th.B.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수료자	신학박사 D. D.	48학점	Th.M. 소지자.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신학석사 Th.M.	60학점	신학사학위 소지자. B.A. 학위소지자	교단교육 편목	3학점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 3학점을 이수하고 노회가입원서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대회에 가입이됨

구비서류: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봄학기: 1월 13일 월요일, 여름특강: 6월 첫째주 월요일, 가을학기: 9월 8일 둘째주 월요일
 L. A. 본교: 2911 W. Beverly Blvd., L.A., CA90057 (213)500-9625(Office) daeshin94@gmail.com
 이사장: 류당열박사(213)858-3781 총장: 강부웅박사(909)635-5131 학장: 박효우박사(213)503-3355
 토렌스분교학장: 김영구박사(310)404-6219 스포츠선교대학장: 김영배박사(323)608-1010 Cyber대학장: 권오달박사(562)924-333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Ph.D

총회 소집공고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 제 39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회원 장로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시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11:00
- 장 소 : 풍성한 교회 (박효우 목사 시무)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381-9490
- 문 의 : (213) 284-1212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 회장 홍순헌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T.323-732-0191/213-304-9191/213-284-1212
981 S. Western Ave. #406 L.A CA 90006 William2wt@hotmail.com

주성교회 새 성전이전 감사 예배

부족한 저를 주성교회를 이어 주성선교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하와이언 가든 시온 마켓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전을 위해 하나님과 많은 분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 성전이전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하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청인 : 주성선교교회 담임목사 손 태정 와 교우일동

-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주일) 오후 6시
- 장 소 : 주성선교교회 (주성학원)
12539 East Carson St Hawaiian CA 90716
- 초청강사 : 강 남 중 목사 (전한생명교회 당회장)
찬양리더 : 양 승훈 전도사 (화요찬양 10년 섬김)
찬 양 단 : 디사이플 축구 찬양 선교단 (단장 김석범 집사)

예수 그리스도와 알렉산더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나폴레옹 황제(Napoleon Bonaparte)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 대제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사랑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를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라도 목숨을 바칠 것이다.” 나폴레옹이 인정한 알렉산더 대왕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라 선지자에 의하여 함께 스가라서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라로 하여금 그리스(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국가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일을 주로 행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특히 느브갓네살과 같은 강력한 바벨론 왕이 함락시키지 못한 두로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두로의 육지에 있는 도성은 점령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2.5킬로미터 지중해상 섬에 구축된 수도는 함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BC 332년 알렉산더는 즉시 그곳 바다를 메우고, 통로를 건설하도록 하였습니

다. 결국 바다에 있던 견고한 성 두로는 알렉산더에게 함락됩니다.

느브갓네살이 13년 동안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던 바다 위의 성을 알렉산더는 7개월 동안 포위하였습니다. 그는 두로성을 향하여 길이 840미터, 너비 200-300미터에 이르는 독을 쌓고, 독을 건너가 성을 정복합니다. 정복 후, 두로의 시민 1만 명을 살해합니다. 나머지 3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고,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만든 제방은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두로섬은 반도가 되었습니다. 스가라가 예언한 지 200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라는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는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알렉산더의 300년 뒤에 오실 한 왕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렉산더는 33세를 살면서 당시의 중근동의 세계를 정복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33세를 살면서 북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병으로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알렉산더는 헬라문명의 전파자가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세상을 심판하였으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알렉산더를 포함하여 모든 열왕과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제국과 너무나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제국의 왕들은 교만하고, 높이 말을 타고, 그리고 무력과 세속적 지혜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며, 지혜의 왕이며, 영원한 자유를 베푸시는 해방의 왕이십니다.

목표점이 보여야 합니다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플로렌스 채드윅(Florence Chadwick)이란 여자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해협을 두 번이나 수영으로 건넌 기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롱비치와 카탈리나섬까지의 약 21마일 구간을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일 기상은 악조건이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카탈리나섬과 롱비치항구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에 차단된 햇빛으로 바닷물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플로렌스 채드윅은 15시간 만에 목표지인 롱비치항을 약 800미터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의 포기에 대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만약 해안선만 보였어도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목표점을 볼 수 없도록만 들었던 안개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9월 4일, 플로렌스 채드윅은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 도전합니다. 그날도 기상조건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해안선을 가리우고 있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목표점인 ‘롱비치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3시

간 47분만에 카탈리나섬과 롱비치 간의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맙니다.

목표점이 보이느냐 아니냐는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인생에 명확하고도 분명한 목표점을 세우는 사람은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목표점이 없으면 삶의 동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일 또한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잘 넘어 갑니다. 더군다나 목표점을 세우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잘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 좀 여설퍼지기도 합니다.

원을 그리 때 컴퍼스를 사용합니다. 이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원을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뾰족뾰족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목표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도 목표점을 세우고 그린 동그라미와 목표점 없이 그린 동그라미는 생김새부터 다른 것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목표점을 설정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점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표점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잠언 29:18)” 여기서 ‘목사’는 ‘목표’ 또는 ‘목적의식’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점’이 없으면 삶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목표점에 대해서 바울은 ‘뾰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뾰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 바울 또한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나 봅니다.

스티브 잡스의 졸업연설



제이슨 송 교장
세언약초중고등학교

애플컴퓨터사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최고 경영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매우 뜻 깊은 연설을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세 번의 대(大)위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졸업생들에게 전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의 결정에 의해 남의 집에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그의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는 리드(Reed)란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대한 학비로 인하여 그는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의 가족사에 얽혀살며, 빈병을 모아 판 돈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고, 어느 종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저녁을 먹기 위해 7마일을 걷기도 했다. 결국 쉬운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간을 통해 글꼴(font)에 대해 배웠고, 결국 그 노하우가 애플 컴퓨터사의 성공요소가 되었다. 대학 시절에 접한 첫 번째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했기에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비즈니스의 성공과 함께 다가왔다. 그는 스무살이 될 무렵 양부모의 집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애플 컴퓨터사를 창업했다. 친구와 시작한 회사는 10년 후 20억불의 매출을 올렸으며 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최고경영자의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것은 젊

고 유능한 CEO로 명성을 떨치던 그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픽사 스튜디오였다.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한 잡스는 새로운 일과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때 자신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잡스는 2005년 회장직을 선택하고 받았다. 앞이 캄캄했다. 의사도 삶을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조직 검사 결과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아주 드문 경우의 회장직이었기에 그는 그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과의 직면해 통해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사람의 한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음이란 관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

해 그는 겸손과 제한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숙을 배웠다고 한다.

잡스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위기를 통해 얻은 지혜를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살라,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같이 여기고 살아가라”고. 끝으로 그는 “Stay hungry, stay foolish(만족하지 말고, 어리석다고 불릴 정도로 창의력을 발휘하라)”란 말로 연설을 마쳤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교육은 대기업의 직원을 만들어내고 미국의 교육은 최고 경영자를 만들어낸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실력보단 학벌을 따지고, 인성보다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남아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 교육에서 교육받고 있다 해도 부모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자녀의 학벌에만 신경을 쓰다간 별 불일없는 사람으로 키우기 쉽다.

부모로서 어떤 졸업연설을 자녀 앞에서 할 것인가?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꿈과 창의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잘 가르쳐주는 연설을 준비하여 자녀와 나누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연설을 올 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 보자.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시판개시!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 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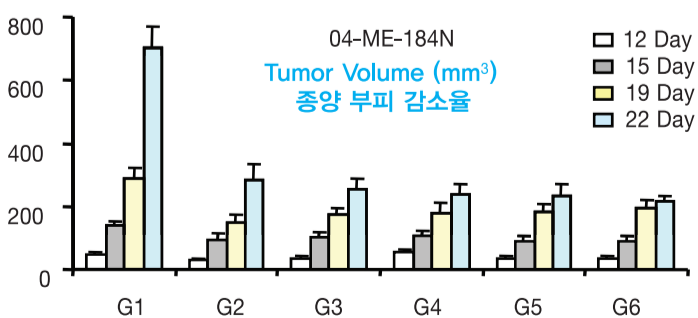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률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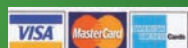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안병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영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정년)
5부예배 오후 3:00(EM정년)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점심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목사회 제42회기 이취임식

매달 금식기도, 목회자의 질적 향상 힘쓸 것



뉴욕목사회 제42회기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12일 뉴비전교회에서 개최됐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 제42회기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황동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뉴비전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예배는 이만호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김원기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기도, 김정숙 목사(회계)의 성경봉독, 뉴욕목사중장단 특송, 김승희 목사(교협 회장)의 설교, 조병광 목사(협동총무)의 헌금기도, 한재홍 목사(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유상열 목사(총무)의 사회, 최예식 목사(직전회장)의 이임사, 황동의 목사의 취임사, 공로패 증정(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김기호 목사), 송병기 목사(목사회 증경회장)의 축사, 최창섭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사, 장석진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권면, 이영상 목사(서기)의 광고, 허걸 목사(목사회 증경회장)의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42회기 뉴욕목사회는 지난 41회기와 같이 신년 1일부터 금식기도회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등 기도를 통한 화합과 일치를 표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황동의 신임회장은 매달 목회자들의 영적충만을 위해 금식기도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황동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목사회가 지난 42년 동안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뤘다”고 하면서 “훌륭한 회원과 임원진들이 힘을 합쳐 새 회원을 확충하고 목사회를 강화하는데 전심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목사는 “회원들의 영적인 충만을 위

김대원 기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필리핀 이재민 돕기에 2만불 쾌척

워싱턴교협, 워싱턴한인연합회, 워싱턴중앙일보 공동모금 캠페인 4만불 육박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영렬 목사가 구호성금 위원장 김영천 집사에게 성금 2만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상성 목사, 노규호 목사, 류영렬 목사, 김영천 집사, 최인환 목사, 정세권 장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영렬 목사)가 12월 13일(금)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 회(회장 최인환 목사) 구호성금위원회(위원장 김영천 집사)에 필리핀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2만불을 전달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초대형 대풍 ‘하이엔’(Haiyan)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주간 모은 성금을 이날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모금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영렬 목사는 “무엇보다 워싱턴지역 교계와 한인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성금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어 감사하다”며, “주님께서 필리핀 소식을 접한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흔쾌히 성금을 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인환 목사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이렇게 동포사회에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

하고 자부심이 생긴다”며,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금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워싱턴교협을 통해 28,607불, 워싱턴중앙일보를 통해 4,220불, 워싱턴한인연합회를 통해 5천여불이 모여져 총금액은 약 4만불에 달한다.

<필리핀 재해 구호 성금>
보낼 주소: P.O. Box 1942
Annandale, VA 22003
은행구좌: Bank of America
051000017(Routing #)
435031739342(Account #)
Pay to: CKCGW
문의: 703-629-0691(교협 대표 전화)
703-507-9995(김영천 위원장)
주요한 기자

나침반교회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T. (310) 530-4040 F. (310) 530-8400

살롬 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민백성 맞아라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1-7724

임마누엘선교회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1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오전 10:00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898-1068 F. 714-373-3097

남가주 살롬교회

김준식 담임목사

주일1부오전 8:00
 주일2부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찬양 기도회 오후 8:15-9: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20050 South Vermont Avenue, Torrance, California, 90502
T. (310) 787-1004

한우리 장로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벤추라 감리교회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성화장로교회

강영석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http://www.bkc.org

풍성한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911 W.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F. (213) 385-9191

사우스베이 벤엘장로교회

김관중 담임목사

주일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5
 유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1519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 310.212.6369

남가주 새소망교회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2세를위한 젊은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323) 954-0944, (503) 332-1941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영어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4-9266, 370-0146
www.gnpchurch.org

동문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9:00,
 2부 주일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83-6625

인랜드교회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남가주 광염교회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한마음제자교회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오정택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0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Worship 오전 11:00
 금요일 찬양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2630-A Townsgate Rd. CA 91361
T. (805) 557-1122 C. (805) 208-8242

OC 생명의말씀사

대표 전인철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민백성 맞아라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T. (714) 530-2211

베데스다대학 총동문회

Bethesda University
회장 최명상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730 N. Euclid St. Anaheim CA92801
T:323-317-3749

사우스베이 목사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회장: 김병용 목사
총무: 김현수 목사



동부 교역자 협의회

회장: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총무: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기교회)
서기: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 이상영 목사(카마리오연합 감리교회)
회계: 조 인 목사

다우전옥스 한인장로교회(이중수 목사)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오정택 목사) 벨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새생명 장로교회(이태호 목사) 벤츄라카운티교회(최상훈 목사)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옥스나드 한인 연합감리교회(박민규 목사)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조 인 목사)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국 목사) 리빙스톤 교회(정준호 목사)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목 목사)

CMF선교원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대표 김철민 장로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714) 493-0191,
(562) 684-4422
www.GodFamily.com
www.CMFM.ORG



와이낫파운데이션

YNOT Adult Residential Facility
(YNOT 장애인그림움)
YNOT Foundation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www.ynotfoundation.org
(323) 342-2808
info@ynotfoundation.org

한기총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OC 목사회

회장 김영찬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한인단체장협의회

대표회장 변영익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웨이스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학장 양병삼 목사

목회학 박사,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신학박사, 철학·상담학 박사 과정
수시학생모집

등록 및 접수: (213)503-5330
상담: (213)200-8052 3251

W. 6th St. #101 Los Angeles
CA 90020

UCS University

총장 아브라함 최 목사

성탄



1543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3146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 초강력 음이온 매트!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콘 매트

-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항중 관절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초당 850만 5000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호흡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숲속의 숙면

고가 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호환을 못보신분.

Dr-NIONZ으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할수 있는 음이온 매트.

히트 상품!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한 음이온 매트

-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항중 관절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초당 850만 5000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호흡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들 사용해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인,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 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잡니다. (사용 1주인, 여) 80세 복보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을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발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 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았습니다. (사용 2일, 남) 50대 글렌데일 브래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중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 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 에겐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 동안 수 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자극적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 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TONE)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 입체형으로 통증이 잘 되며 슬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히 낮췄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30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5 year WARRANTY

FUJITA

KN9003 / 2013 최신형!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1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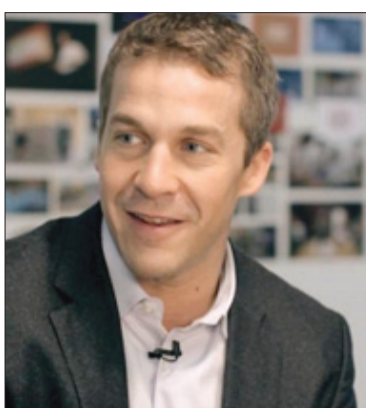
로데오 갤러리아 몰안
대표전화: 323-454-7872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SALE \$4,200 (Tax)

\$175/월 2년 무이자
www.Gosmartworld.com

또 유명 목회자 아들 자살... 릭 워렌 측 애도 표명

미국에서 또다시 유명 목회자의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언론들은 10일 플로리다 서밋교회 전 담임목사인 이삭 헌터(Isaac Hunter·36) 목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삭 헌터 목사.

헌터 목사는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조엘 헌터(Joel Hunter·63) 목사의 아들로 교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조엘 헌터 목사는 플로리다 노스랜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종교 자문위원이자, 현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이사 및 세계복음연맹(WEA) 북미이사로 섬기며 복음주의 교계에서 눈에 띄는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자살한 이삭 헌터 목사는 세 자녀의 아버지, 자신이 창립한 서밋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역량있는 목회자였다.

그러나 그는 최근 교회 재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뒤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4월 쓴 것으로 밝혀진 유서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나의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과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나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고 썼다.

아직까지 조엘 헌터 목사를 포함

해 함께 슬퍼하고 있으며 이사를 그리워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봐 왔고 그를 사랑한다. 우리의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막내 아들을 자살로 잃은 릭 워렌 목사 가족 측은 이삭 헌터 목사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각별한 애도를 표명했다.

케이 워렌 사모는 트위터에 "사랑하는 이사를 잃은 조엘 헌터 목사의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눈물만 흐를 뿐이다"고 울리기도 했다.

또한 이 비극적인 소식에 WEA의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도 특별히 조엘 헌터 목사 가족을 위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터니클리프 대표는 조엘 헌터 목사와 개인적으로도 오랜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터니클리프 대표는 "조엘 헌터 목사는 우리 WEA 북미 이사회의 오랜 일원일 뿐 아니라 소중한 친구이기도 하다. 오늘 나는 그의 아들 이삭의 사망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WEA의 모든 가족들이 조엘과 그의 아내 베키, 그리고 모든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당부했다.

순현정 기자

'핍박은 중동에만?' 박해에 대한 오해

폭스뉴스, 기독교 핍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소개

기독교 박해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 몫을 한다. 미국 폭스뉴스가 최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 오해 다섯 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는 조지타운대학교 종교자유 프로젝트팀의 티모시 새뮤얼 샤(Timothy Samuel Shah)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했다.

첫 번째 "기독교 박해는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기독교 핍박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종교적 관용이 존재한다고 하는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오해는 "박해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다. 샤 연구원은 "종립적 설문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박해 받는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박해가 일어나는 나라의 숫자도 더 늘고 있다. 여기에 박해의 정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은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박해의 영향이 단지 문화적인 데에 국한된다"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소수종교인 나라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그 부정적 영향은 문화적 다양성이 침해당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샤 연구원은 "체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사회가 임는 피해는 문화적인 것 이상이며, 그 해로운 영향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하기 때문에 박해를 자초한다"라는 것이다. 샤 연구원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병원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재민들을 돕게도 만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해는 내가 사는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역시 심각한 오해로 꼽혔다. 샤 연구원은 "사람들은 박해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 규제나 사회적 반감이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폭스뉴스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기독교 박해 문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순현정 기자

핍박의 역설... 시리아·이집트 등 성서 반포 급증

세계성서공회연합회, 2012년 전세계에서 3,340만부 반포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발표한 '2012년 성서 반포 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2)'에 따르면, 전 세계 성서 반포가 2011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46개 성서공회들을 통해 반포된 성경의 부수는 약 3,340만 부였다. 이것은 2011년의 3,210만 부에 비해 약 4%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0.5%, 아메리카에서 10.1%, 아시아·태평양에서 0.1% 증가했으나, 유럽·중동에서는 4%나 감소했다.

신약 반포 부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2,609만부로 집계됐다. 각 성서공회들이 반포한 단편과 전도지 부수는 3억 7,700만 부로 전년도보다 11.2% 늘었다. 주요 핍박국가들인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인도, 라오스, 나이지리아 지역 성서공회에서의 성서 반포가 대폭 증가한 것. 이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이다. 시리아 성서공회는 전년에 비해 8배 이상의 성서를 반포했다고 보고했다. 2011년 약 1만 9천부에서 2012년 약 16만 3천부로 수치가 오른 것. 시리아의 성

서 반포 사역을 주관하고 있는 레바논 성서공회 마이크 바수 총무는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시리아성서공회 직원들은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운반하기 쉽도록 성경전서보다는 단편성서나 성서달력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서 반포 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이미

자국을 탈출한 이라크에서도 2012년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만 6천부 이상이 반포됐다. 이집트에서도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280만부를 반포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배포가 쉽고 읽기 쉬운 단편성서와 전도지를 주로 반포했다. 최근 몇 년 간 집중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성서 반포가 5% 늘었다.

이밖에 남아시아의 경우 인도성서공회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700만부를, 라오스성서공회는 3배 증가한 2만1천부를 반포했다. 이대웅 기자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라오스 기독교인들. ©대한성서공회 제공

前 동성에 잡지 편집장, 신앙 가진 뒤 이성과 결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에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인물, 신앙을 갖게 된 뒤 이성과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이클 글레이즈(Michael Glatze)는 지난 2007년 XY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동성애는 죽음이다.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의 전환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재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베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글레이즈는 WND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내 동성애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나는 동성애자 여러분의 상태와 관점을 이해한다. 내가 미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혼돈에 빠졌으면 하는 여러분의 바람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도가 이성 간 결혼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며,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보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관점에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글레이즈는 "나의 관점이 각 개인들로부터도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을 안다. 또한 내게 당장 '쓸어버려야' 하는 '광신적인 우파'라는 딱지가 붙게 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난 하나님께 매일 나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사귀었던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삶과 존재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후,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Truth Wins Out는 그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으며, 최근에는 그의 아내 레베카마저 비난의 표적이 됐다.

글레이즈는 "내가 이성애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리신 가장 최고의 결정"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글레이즈는 "난 호흡하는 매 순간 감사한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레베카에게 정말 감사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순현정 기자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p>New Life Christian Church of San Diego 조주호 목사</p> <p>주일 대예배 정오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p> <p>4324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CA 92117 T. (858) 571-0445, C. (858) 472-0445</p>	<p>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후 2:00</p> <p>2727 N. Durfee Ave., El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p>남가주 주님의교회 한의준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EM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00 차세대 영어예배(EM) 오전 10:45분</p> <p>1747 S. Nogales St. Rowland Hts., CA 91748 T. (626) 965-9191</p>
<p>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45 주일 3부예배 오전 10:4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새벽 5:30(화~토)</p> <p>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p>	<p>예향선교교회 김종호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isaacdew@hotmail.com</p>	<p>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9-8492</p>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0)

14)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상반된 견해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그릇된 견해를 일일이 다 예거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오해나 단편적인 견해들이 비단 문외한이나 비전문가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문가들에게도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한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바 있는 〈희랍사상과 비교한 히브리사상〉의 저자 보만(Boman)은 희랍사상의 특색이 정적인 반면에 히브리사상의 특색은 동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의 유대인 사사가 데이비드 루자토(David Luzzatto: 1800-1865)는 보만과는 달리 유다이즘은 본질적으로 정적이고 불변하는데 반하여 헬레니즘은 동적이고 진보적이며 끊임없이 신기(novelty)와 혁신(innovation)을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왜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면 또는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상이 역사적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특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라는 말들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견의 일치가 없다는 것이다.

3. Hellenism과 Judaism이란 말의 유래와 뜻

1) Hellenism

먼저 헬레니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는 지금까지 헬레니즘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고대 희랍의 사상과 종교 그리고 관습을 포함한 고대 희랍문화 일반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해 왔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헬레니즘이란 말은 BC 8-2세기에 걸친 고대 희랍 전체가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 즉 BC 323-30에 있어서의 문화 일반을 가리킨다. 헬레니즘을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문화사가 드로이젠(Droysen)이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제2 마카비 문서 3:13에 근거한 것이다.

이 책에서 헬레니즘은 알렉산더대왕과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희랍의 종교, 사상 그리고 풍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티오키투스 4세의 유대인들에 대한 억압과 학정 그리고 불경한 행동을 정죄하고 이에 대항한 마카베우스와 그 형제들의 항거를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므로 당시의 헬레니즘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드로이젠은 제2 마카비문서의 견해를 따라서 헬레니즘을 좁게는 “희랍 언어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넓게는 “알렉산더에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의해서 정복되고 희랍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점차 이 말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볼트만 이후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의 저자로서도 잘 알려진 마틴 행켈(Martin Hengel)은 이 책 후에 쓴 〈그리스도 이후 1세기 유대에 있어서의 헬라화〉라는 이름의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말은 역사와 고대의 연구 분야에서서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과 그 뒤를 잇는 희랍-마케도니아 지배에 의해 촉진된 새로운 문명, 다시 말해 희랍 언어, 희랍적 생활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형성된 문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 복잡한 과정은 제국의 동방에서 AD 4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처하에도 계속되었다. 갈리기아, 코마게네,

북 메소포타미아, 포에니키아, 유대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나바테아의 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시리아에서는 이 발전이 로마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절정에 이르렀다.

한편 볼트만의 제자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Harvard에서 가르쳤고, 기독교 초기의 배경을 다방면으로 다룬 두 권으로 된 신약개론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헬무트 쾨스터(Helmut Koester)의 드로이젠이 헬레니즘에 부여한 의미에 대한 이해는 행켈의 그것과는 달라 보이며, 또한 이 말에 부여된 의미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드로이젠 이후로 헬레니즘이란 말은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희랍문화와 동방문화의 혼합(amalgamation)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학계는 보다 신중하다. 한편으로 알렉산더 이전 즉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도 수세기에 걸쳐 희랍과 동방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어왔다. 희랍식민, 희랍의 경제력의 팽창, 그리고 특히 이오니아 지방의 희랍인들에게 있어서 밀접한 문화적 접촉은 오래 전부터 희랍적 요소들과 비희랍적 요소들 간에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특히 희랍 본토 밖에서 그러하였다. 만일 이 과정을 헬레니즘이라 한다면, 이 용어는 BC 4세기 후반에 시작된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데는 적당치 않다.

위의 두 예는 헬레니즘이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헬레니즘 문화

(Hellenistic Civilization, 1974)의 저자들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문화사가 들인 탄(William Tarn)과 그리피스(G. T. Griffith)가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에서 헬레니즘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랍적 요소와 동방적 요소들이 혼합된 새로운 문화를 뜻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의 희랍문화의 순수성의 계속 한 문화이나 새로운 여건에 의해서 얼마간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견해들은 옳기는 하나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은 세부적인 데에 이르면, 예를 들면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은 전적으로 희랍적이지만 그 지배학문인 천문학은 희랍과 바빌로니아의 공동작품이라는 사실에 접하면 이러한 견해들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올바른 이해에 이르려면 현상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희랍문화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친 3세기 동안의 문명을 지칭하는 편리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두를 포함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헬레니즘이란 말을 헬레니즘시대(BC 323-30)의 희랍문화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와는 달리 고대희랍문화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필자도 이 말을 고대희랍문화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26)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26회)

Does your brother like his school?
당신의 형은 그의 학교를 좋아하나요?
Yes, he likes his school very much.
네, 그는 그의 학교를 많이 좋아합니다.
Do they like to ride the bus to school?
그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Yes, they do.
네, 그들은 좋아합니다.
Is this your new car?
이것이 당신의 새 차인가요?
Yes, it is. I like my new car very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much.
네, 나는 새 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Do you have a new car, too?
당신도 새 차를 가지고 있나요?
No, my car is very old.
아니요, 내 차는 낡았습니다.

When do want to buy a new car?
언제 새 차를 사기 원하나요?
I don't know yet.
아직 모르겠어요.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26회)

There was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Pharisee and a Jewish leader. One night he went to Jesus and said, "Sir, we know that God has sent you to teach us. You can not work these miracles, unless God is with you."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

을 찾아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English Higher Level (고급 영어 26회)

John Amos Comenius was born in Nivnitz, a little village in Western Moravia. He has been known as the First Modern Educator. He says, "Teaching is a Science." When he was speaking, the hearers felt that a Prophet was speaking. He claimed that the best

thing a man can do is to follow God willingly, though it may be with tears, fortune, and misfortune. Joy and sorrow, laughter and weeping.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서부 모라비아 작은 마을인 니브닛츠에서 태어났다. 그는 최초의 현대 교육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육은 과학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청중은 예언자가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비록 그것이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라도, 운이 좋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기쁘거나 슬플지라도 또는 웃게 되거나 울게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렴하고 성경적인 의/료/비/해/결/책
크리스천 헬스케어
Affordable & Biblical Healthcare Solution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CHM)은 미 전역 50개 주에 살고있는 수만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서로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30년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사역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료비 대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도 적합한 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CHM은 보험이 아닙니다.

플랜의 특징
 ✓ 건강보험보다 저렴함
 ✓ 오바마케어 헬스플랜
 ✓ 골드플랜의 최고지원액 : Unlimited
 ✓ 실버 / 브론즈의 최고지원액 : 첫해\$225,000까지(B.K 포함)
 ✓ 전국 50개 주에서 가입 가능
 ✓ 대기기간 (waiting period)이 없음
 ✓ 훌륭한 임신 / 출산 프로그램 포함
 ✓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
 ✓ 신체검사나 피검사가 없이 가입
 ✓ 지병 /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
 ✓ 한국의 병원도 이용가능
 ✓ 회원소개마다 본인의 한달치 회비면제
 ✓ 나의 나눔이 이웃 크리스천의 필요한 의료비로 전달되며 또 나를 도움 이웃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복6:38)

플랜

Gold	골드 : 월\$150/인	Silver	실버 : 월\$85/인
\$0 ~ \$5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0 ~ \$1,0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501 ~ \$125,000	골드플랜이 100% 지원	\$1,001 ~ \$125,000	실버플랜이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100% 지원
\$125,001 ~ Unlimited	추가 : 브래더스 키비 플랜, 첫해 총 \$225,000 - 우대환원비 \$40/가부, 분기당 평균 \$18/Unit	\$125,001 ~ \$225,000	추가 : 브래더스 키비 플랜, 첫해 총 \$225,000 까지 지원, 매년 \$100,000 씩 지원액 증가, 연회비 \$40/가부, 분기당 평균 \$18/Unit
	1. \$500 미만의 케이스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케이스당 \$500 이상의 의료비용 일년 가한한도금액은 \$500이지만, \$500미만의 케이스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장시간 수술료 여자는 의사상당하며, 처방약 비용은 지원됩니다. 4. 임신 / 출산시 개인당 \$500 을 제한 모든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1. 병원 (hospital)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만 지원됩니다. 2. 출산시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Bronze 브론즈 : 월\$45/인

\$0 ~ \$5,0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5,001 ~ \$125,000	브론즈플랜이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100% 지원
\$125,001 ~ \$325,000	추가 : 브래더스 키비 플랜, 첫해 총 \$225,000 까지 지원, 매년 \$100,000 씩 지원액 증가, 연회비 \$40/가부, 분기당 평균 \$18/Unit
	1. 병원(hospital)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만 지원됩니다. 2. 출산시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브래더스 키더(B.K)

- 예기치 못한 중병에 대한 보호장치
- 한 케이스당 \$125,000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플랜
- 플랜: 가입즉시 최고지원액이 무제한으로 증가, 실버/브론즈: 가입즉시 최고지원액이 \$225,000로 증가, 골드: 매년 추가로 1인당 \$225,000로 증가
- 연간 운영비용 : 가부당 \$40
- 분기당 지불액 : 평균 \$22/인 (가족은 3인)

가업조건 : ●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며. ● 담배와 마약을 삼가하며 (고정 6:19-20) ● 음주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히 10:25)

CHM 한인지민국 www.chman.org
 T) 213-444-1599, 714-228-9954 F) 714-228-9938
 CHM Korean Outreach, 8382 Artesia Blvd. Suite 1, Buena Park, CA 90621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
 한인지원국 213-444-1599 또는 714-228-9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www.chman.org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회사의 그룹가입 문의는 213-842-3906 또는 stevenson@chman.org입니다.

	1인	2인	가족
골드	\$150	\$300	\$450
실버	\$85	\$170	\$255
브론즈	\$45	\$90	\$135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조정민 | 두란노 | 2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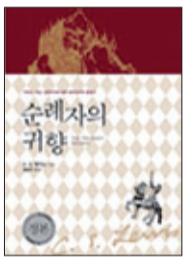
'불교계에 헤민 스님이 있다면, 기독교계에는 조정민 목사가 있다.' SNS 스타인 저자의 트위터 잠언록 시리즈 네번째 책이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새로운 길을 가기 원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 낯선 일을 앞두고 힘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순례자의 귀향

C. S. 루이스 | 홍성사 | 320쪽

'기독교, 이성, 낭만주의에 대한 알레고리적 옹호서'라는 부제가 붙은, 저자의 자전적 소설이다. 회심 후 가장 먼저 쓴 글로, 천로역정을 모티브로 했다. 프로이트주의, 세속적 교양, 현대화된 종교, 휴머니즘, 이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물질주의와 다양한 철학들에 대한 루이스의 예리한 평가도 녹아 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신필수 | 생명의말씀사 | 247쪽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다. 화려한 자기예배당은 없어도, 그가 세운 교회는 이미 수십 곳에 이른다. 그에게 교단의 장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첫 번째 세운 지교회도 다른 교단의 교회였다. 그에게는 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바른 길

존 C. 라일 | CLC | 632쪽

리버풀 주교 시절 저자가 성직자들 모임과 교구 회의에서 행한 설교를 모았다. 그는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역자들 간의 교제를 통한 영적 삶이 중요함을 확신하며, 이것이 사역자들을 견고케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굳게 세울 것을 설교한다.



REVIEW

변화시키는 복음에 흠뻑 빠지라... '복음 기도' 를 통해

J. D. 그리어 목사의 <복음본색>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어 목사

(Greer) 목사의 <복음본색>은, 머리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가슴을 적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렸거나 놓쳐버려 삶 속에 복음이 사라진(missing)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깊어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소위 '영적인 변화'-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헌금을 드렸는지-는 종교적(기계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종교적 행위는 우리의 죄를 주도하는 '근원적' 우상숭배를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죄를 약화시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는 커녕 불안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 대신, 우리 자신을 먼저 '복음의 진리'로 흠뻑 적셔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독특한 점은 여기서 자신이 매일 수년간 반복해 온, 일명 '복음 기도(The Gospel Prayer)'를 소개한다는 것. "이는 마법이나 주문도 아니고, 이것으로 주기도문을 대체하려



복음본색 새물결플러스 | 328쪽

는 의도도 없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양식(patterns) 안에서 훈련하려는 도구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아니라, 복음과 일치하는 생각이다."

'복음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 두 부분은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납과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가치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 부분은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저자가 섬기는 서밋교회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5개 교회' 중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그리어 목사가 지난 2002년 부임한 후 성도 수는 3백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서밋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1천 곳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3백명 이상을 미국 등 전 세계에 파송했다. 이 책의 원제는 Gospel: Recovering the Power that Made Christianity Revolutionary다.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배빠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달라스 세미한교회 최병락 목사 인터뷰

목회에 공식은 없다! 좋은 목사되려면 소명에 충실해라

세미한교회. 개척한지 약 10여 년 만에 달라스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1천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소속된 남침례교회로부터 '가장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

개척부터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최병락牧사는 기본기에 충실한 목사다. 성경에 충실한 영감 어린 설교, 열정적인 기도,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 스타일 등 그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그는 자신을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목사"라고만 말한다. 목회 비법도 뭐 거창한 것이 없다. 그저 기본기뿐이다. 이제 그로부터 그 기본기를 들어 본다.

-이민목회의 독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제가 미주 전체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다녀 보면,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이 동일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민자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 미국 사회의 소수이며, 영어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하고, 미국 사회에서 각종 좌절을 겪습니다. 특별히 달라스는 LA나 뉴욕에서 실패한 한인들이 오는 2차 정착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민자들의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집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의 한인 이민자 공동체라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민목회의 핵심이 이민자에 대한 이해라면, 좋은 이민 목회자가 되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1998년에 달라스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에 IMF가 터지면서 유학생 생활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외환 위기를 겪는 나라 출신 유학생들에게 워크퍼트를 주어 학비를 벌 수 있도록 배려해 줬지요. 그때 전 도넛 가게 파트타임, 페가 수리나 청소, 레스토랑 접시닦이 등 십여 가지 파트타임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싶는데, 왜 이렇게 세상 일을 해야 하나" 원망도 많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이 기간이 나를 이민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달라스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목회자들이 쉽게 목회지를 떠난다는 것

이에요. 주변에 유명한 신학교가 많다 보니,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좋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 한국으로 혹은 타주로 청빙받아 떠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우리 교회와 제 이름이 알려지지 사람들이 저도 곧 떠날 거라며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으니 그때부터 평판이 "달라스에도 좋은 목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감이 쌓이고 나니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인이 10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이 지역에서는 소위 스타 목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의 옷을 입는 목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영당을 잘 붙이고 있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 혹은 한인교회가 목회자 청빙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영당이 붙임의 목회가 상당히 마음에 다가옵니까?

저는 제가 상당히 좋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3년이 지나니까 제 점수가 보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봐라. 네 마음이 이 정도다. 큰 교회가 부르면 양 떼를 다 버릴 준비가 된 목사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다면, 그 교회가 더 큰 교회건, 더 작은 교회건 무조건 가야겠지만 언제든지 양을 버릴 준비가 된 목사라... 그제서야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혹시 달라스에서도 있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공부하신 사우스웨스턴신학교나 달라스신학교는 모두 보수적, 성경중심적 설교를 강조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목사님의 설교 준비는 어떻게?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우스웨스턴신학교 도서관을 청소하는 파트타임 일을 했는데, 그때 밤새 청소하면서 "내가 졸업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다 읽진 못했죠. 하하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때 주석이 큰 도움이 되고 또 각종 서적들도 참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화집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화를 찾아 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은 같습니다. 목사가 경험하는 이민자의 고민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단 거죠. 저는 이런 것에서 실질적인 예화를 뽑아 설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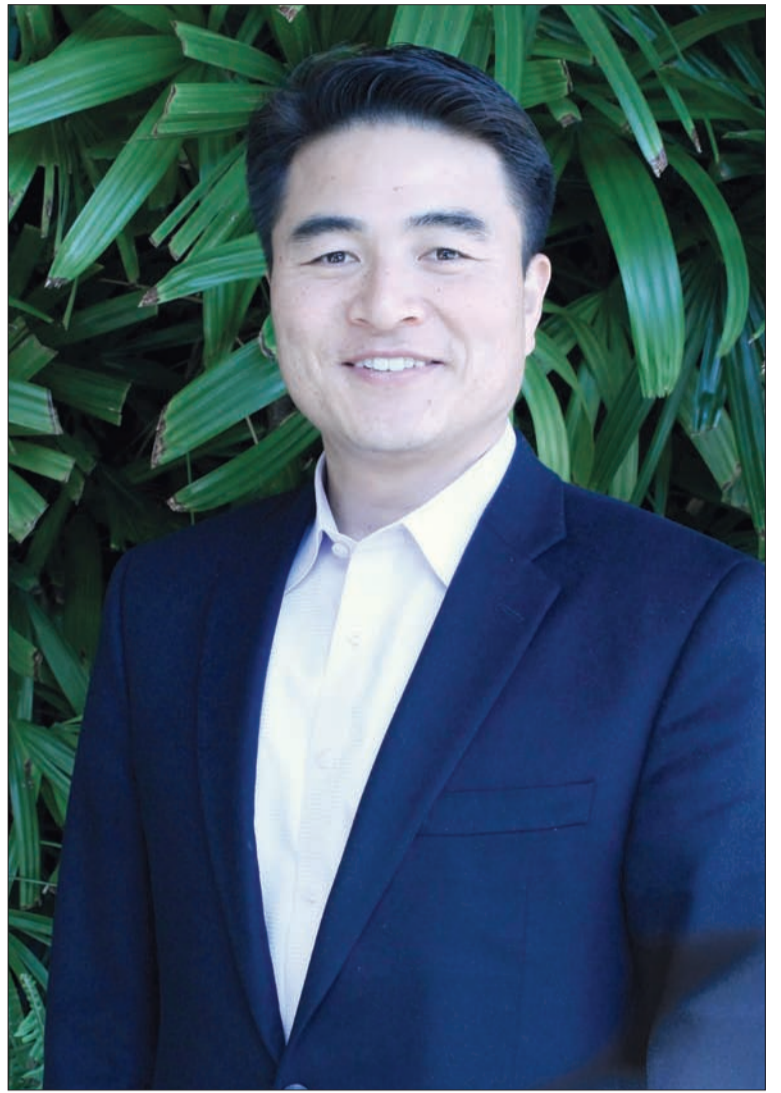
-세미한교회의 예배 분위기는 보수적 침례교회 분위기가 아니죠?

예배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금요 성령집회는 인근 지역에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그런 신비한 현상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에 나온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부르짖으라 하니 부르짖는 거죠. 가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냐고 묻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리 하라고 나오니까 그리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부교역자는 "제 스타일과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이 부교역자의 자녀가 크게 아팠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그도 예배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타일이란 건 없다. 간절하면, 같다면 부르짖는다. 그런데 꼭 자녀가 아파야, 몸이 아파야, 돈이 떨어져야 긴급한가? 왜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런 같잖음이 없는가?"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할 수 있고, 좌악된 세상을 향해 목마른 심정으로 부르짖자는 겁니다.

-세미한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기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전체 예산의 약 20%를 선교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교 예산의 비중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는 이 학교 사역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난공불락



LA를 집회차 방문한 최병락 목사를 한인터뷰에서 만났다.

의 선교지 이슬람권에서는 7년에 1명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소수정예 기숙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슬림 부모도 자녀 교육이 종교보다 앞섭니다. 기독교 학교인 것을 알지만, 영어로 이뤄지는 고급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킨더부터 12학년까지인데 중간에는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10학년에 입학해서 잠깐 교육받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킨더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됐고 60명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한다면?

김준형 기자

목회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소명에 확신을 갖고 감사하십시오. 물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좌절감 때문에 결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목회의 자리입니다.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교회가 크고 작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신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게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따뜻한 겨울, 건강을 주는 살아 숨쉬는 꿈의 섬유 **KSB 헬시케트**

KSB 헬시케트는 일본 '데이진'사의 '데비론' 프랑스 '로빌'사의 '로비롱'의 장점만을 뽑은 양털보다 2배의 보온성, 습도가 전혀 없어 항상 보송보송하고, 모든 건강 제품에서 말하는 음이온이 평생 만들어지는 38년 동안 변하지 않고 판매되어온 **'음이온 원조 건강이불'**입니다.

- * 말과 소가 덮어도 체험이 나오는 음이온 건강이불.
- * 누구나 그냥 덮고 주무시기만 하면 건강해 집니다.
- * 혈액정화, 세포활성, 면역력 증가, 자율신경 조정, 활성산소 제거, 통증완화, 냄새 제거 등.

수족냉증, 저리고 쥐는 증상, 관절염, 아토피, 천식, 암, 루포스, 대상포진, 암, 신경통, 중풍, 심장마비, 우울증, 불면증, 위산과다, 요실금, 생리통, 심장병, 신부전증, 당뇨, 수족냉증, 현대병, 공해병 등 공기 좋은 산속에서 6개월이면 아토피도 없어집니다. KSB 헬시케트는 산속보다 더 많은 음이온을 발생시킵니다.

광고지침 방문하신 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열행 검사 *체질 검사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리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은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교회 기도실

213) 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미주한인교계, 금식 기도로 이민개혁 동참하자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금식기도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주관하고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미 전역의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금식기도로 동참하기로 했다.

KCCD 임혜빈 회장과 이사장 박종대 목사, 워싱턴교협 회장 최인환 목사와 총무 박상섭 목사, 워싱턴교협 중경회장 김양일 목사와 최윤환 목사,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양보영 목사 등은 1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미국 국회의사당 근처에 텐트를 치고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동행한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이민생활

을 간증하며 이민자들의 공헌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 등을 치하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용감한 이민자들의 희생을 통해 역사는 바뀌어져 왔다"며, "내년 초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체 드립액트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짐 윌리스 목사(소저너스 설립자)는 "이민개혁은 단순히 라티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문제다. 나아가 이로 인해 서로 헤어져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볼 때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한인들이 금식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메신저가 되어 행동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텐트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 등 장기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임혜빈 회장은 "현재 이민 수속 중인 약 400만 명 중에 40%, 약 160만명

의 한국인과 아시안들이 약 15년에서 20여년 간이나 가족들을 애타게 눈물로 기다리고 있다. 한국인은 10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로 지내고 있으며 전체 서류미비자 국가로는 7번째 규모다. 작년 통계로 아시안이민자들의 70%가 가족이민인 만큼 이민개혁법안이 직계가족만으로 제한될 경우, 아시안 이민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법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미국은 2조 5,000억 불의 GDP 경제손실이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GDP 1조 4,000억 불의 경제 성장이 있게 된다"며,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민주·공화국의 초당적 협력과 미국민의 넓은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만 한다. 이기적인 정치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단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추방이나 구금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요한 기자

2050년 한국 교인수는 300-400만... 문제는 '오만'

교육목회실천협의회(대표 정영택 목사) 주최 제10차 교육목회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연동동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균형있는 2014년 목회를 준비하는 교육목회 송년포럼-미래목회 Ch. 퓨처리스트'를 주제로, 예정통합 총회교육자원부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전략연구소(대표 김정서 목사, 이하 한다연) 등이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박봉수 목사 사회로 최윤식 박사(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가 '한국교회 미래를 성찰한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윤식 박사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 중인 제가 예측하는 한국교회의 기본 미래(Baseline Future)는 암울하다"며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꿈처럼, 한국교회도 찬란했던 지난 100년간의 부흥기가 끝나고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의 파급력과 현재 위기요소들을 고려할 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300-400만명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중 60-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로 구성되는 것이고, 주일학교는 5-10%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진단했다.

최윤식 박사는 "지난 5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기독교인 수는 이미 1990년대 초반 이후 더 이상 늘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다"며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위기를 준비해야 했는데 당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부족해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교회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박사는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은 한국 사회나 국민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의 사역이나 영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런 물리적·경제적 재앙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에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다 못해 오만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오만과 무관심은 미래의 위기에 엄청난 쇼크를 동반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30년 간의 주일학교 침체는 이제 30-40대 성도들의 본격적인 감소를 불러오는

등 한국교회는 당분간 '뿌린대로 거두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2010년부터 한국교회는 30-55 세층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20-30년간 장년층 감소와 55세 이상의 증가, 주일학교의 완전한 쇠퇴가 맞물리면서 '늘고 작은 교회'로 변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21세기 초반에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혁명을 비롯해 아랍권의 민주화 물결, 극심한 부채의 팽과 자산시장 붕괴를 촉발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급격한 고령화로 말미암은 인간존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반성, 인간성에 충격을 줄 로봇과 사이borg, 나노,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과 인간복제·생명 혁명들이 가져다주는 윤리적 화두들에 교회는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윤식 박사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자의 이런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처럼,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숙기와 쇠퇴기에 걸맞는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의 한계선을 돌파할 수 있는 '재창조(갱신)적 목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후자처럼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뼈를 깎는 갱신을 통해 성장의 한계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지난 10-20년간 건축 등 하드웨어에 집중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목회자의 자질을 높여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교회교육의 수준을 높여 신앙계승을 원활하게 하고 미래의 양적 부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어린이·청소년 부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15년간 쏟아져 나올 1,640만명의 은퇴자를 교회의 새로운 역동적 힘으로 만드는 등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함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미드웨스트대학에 전세계 교육자 모여 컨퍼런스

미드웨스트대학교(제임스 송 총장)에서 전세계의 교육자들이 모여 제9차 국제 교육 협력 컨퍼런스-국제교장 리더십 세미나를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다. 중국, 아프리카, 몽골 등지에서 참석한 현지 학교 대표들은 교육자의 리더십과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중국 광둥성 교장총연합회 회장, 몽골 전국교원총연합회 부회장,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중고등학교장 등 실제 교육계에 있는 관계자들은 미주리 주정부 교육부장관 크리스 니케스터, 중국 인민대학교 인문대학장 지아주 순, 몽골국립대 총장 안즈마 저트만, 링컨카운티교육구 교육감 마크 페니, 미드웨스트대학교 이사장 린넬 슈메이크 등의 강의를 경청했다.

이들은 미주리 주 교육청사를 방문해 미주리 주 교육 시스템의 현재와



미드웨스트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자 컨퍼런스.

미래를 견학하고 주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는 미드웨스트대학과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리더십연구원 공동으로 한국, 태국, 케냐, 페루, 루마니아, 필리핀, 몽골 등

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강사 중 제임스 송 총장은 2014년 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주강사로 서게 되며 그동안 14년째 이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해 왔다.

농협 홍삼 한삼인

판매순위 1위인 홍삼 100% 순액. 72시간 이상 저온 추출시스템으로 항당뇨작용, 체력증진, 위장기능강화, 항암작용에도 강력한 효과.

고객 감사 세일

2병(100g*2) 구매시 + 1병(100g) 증정

1병(240g) 구매시 + (100%홍삼즙)활력액 1box(30포-1달치) 증정

SALE 2+1
농축액 100g

SALE 1+ 활력액
농축액 240g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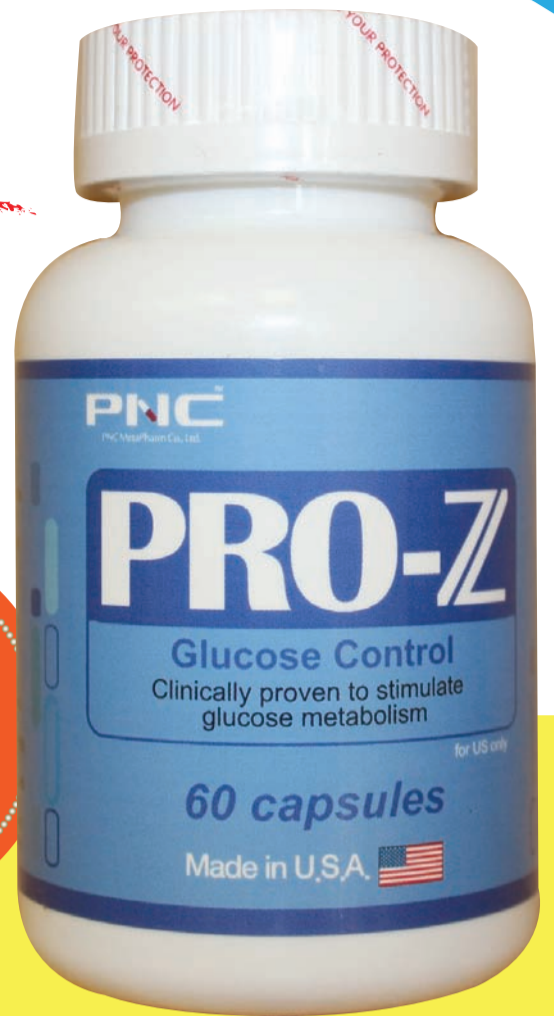
LA 지역: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 323.737.8888 (올림픽+하바드 - 서독안경빌딩)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플러턴지역: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 213.453.6624 (아리랑마켓입구)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걸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장 OO 목사(당뇨 4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621 S. Virgil ave,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프로지 셀러(seller) 모집중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